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월가 전문가들, 미 물가 오르지만 내년 크게 낮아질 듯
- CNN Business: Fitch, "내년 미 경제는 90년대식 완만한 침체"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달러 강세로 미 작은 기업들도 역풍

[11월 미 중간선거]

- The Economist: 민주당 경제 이슈에 열세지만 다른 이슈들에 우세

[글로벌 경제]

- CNBC: 전문가들, "내년 글로벌 경제 위축에도 동남아시아는 전망 밝다"

[Covid-19]

- The Economist: 일본인은 여전히 마스크 잘 안벗는다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 WSJ: 미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소매업체와 브랜드들에 돌파구가 될까?
- Bloomberg: 월마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판매 협업 플랫폼 오픈
- WSJ: 식어가는 E-Commerce 창고 시장,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직면
- WSJ: 마이크로소프트, 성장 둔화로 인력 감축
- CNBC: 이케아,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과 손잡고 텍사스에서 시범 배송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Even as US Inflation Climbs, Wall Street Sees Steep Fall Coming

월가 전문가들, 미 물가 오르지만 내년 크게 낮아질 듯

-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가 상승하겠지만 내년에 걸쳐 인플레이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들은 또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2024년까지 연준의 물가 목표 2%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블룸버그의 전문가 대상 설문문에 따르면 개인 핵심물가지수는 내년 4분기에 연평균 2.8%, 2024년 1분기에 2.6%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Next spring the economy will sink into a 1990-style mild

recession, Fitch says**Fitch, "내년 미 경제는 90년대식 완만한 침체"**

- 견고한 인플레이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해 미국 경제는 1990 년 방식의 완만한 침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Fitch사의 보고서 발표 내용이다.
- 이에 따르면 Fitch는 연준의 긴축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미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율을 당초 6월에 1.5% 상승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0.5%로 낮추었다. 내년 2분기에 소득과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 둔화가 된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CNN Business: The strong dollar has an unexpected victim
달러 강세로 미 작은 기업들도 역풍**

- 애플, 맥도날드, 코카콜라, Procter & Gamble과 같은 다우나 S&P 500에 속한 회사들이 해외 비즈니스 수익에서 올해 어려움을 겪었다.
-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 예를 들면 S&P SmallCap 6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올해 22% 낮아졌다(S&P 500은 25% 하락). 또한 대부분이 작은 기업인 Russell 2000 지수도 25% 떨어졌다.
- 점차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 달러 강세 수혜(글로벌 경제에 대한 노출에 상대적으로 강함)이 미 국내 경기 침체로 상쇄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 또다른 어려움은 달러 강세로 해외 수입품이 값싸지다보니 미국의 작은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11월 미 중간선거]**The Economist: Democrats are losing on the economy, but lead on other issues****민주당 경제 이슈에 열세지만 다른 이슈들에 우세**

- 경제가 최우선 이라고 답한 미 유권자 중 63%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을 찍겠다고 답했고 28%만 민주당 이라는 것.
- 그러나 민주당이 다른 이슈들에서 18 포인트 이상 앞서, 즉 민주당은 유권자 55% 지지율, 공화당의 37% 지지율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투표에 참석할 유권자의 20% 정도만 경제가 최우선(답변은 31%가 경제 이슈가 우선)이라고 한다면(투표한다면) 민주당이 7% 포인트

앞서게 된다는 것이다.

- 미 유권자들의 1/3이상은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10% 정도는 의료, 기후 변화, 낙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밑으로 인권(7%), 국가 안보(6%), 범죄/이민/정부지출(각각 5%씩)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 미만만이 교육, 총기 단속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같은 조사는 The Economist가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YouGov와 함께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The Economist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Asia could be a bright spot amid global downturn next year, economists say

전문가들, “내년 글로벌 경제 위축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전망 밝다”

-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는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아시아와 태평양 경제 성장은 각각 4%와 4.3%로 예상했다. 물론 과거 20년간의 평균 5.5%보다는 낮은 수치.
- 그러나 이들 지역들은 유럽보다 전망치가 더 밝다. 즉, 유럽의 경우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은 3.1%와 0.5%, 그리고 미국은 1.6%와 1%로 예상됐다.

CNBC 기사

[Covid-19]

The Economist: Many Japanese are still reluctant to go unmasked

일본인은 여전히 마스크 잘 안벗는다

- 물론 팬데믹 전에도 서구와는 달리 일본인은 마스크를 자주 쓰는 편이었다. 봄날 꽃가루와 본인의 기침 감기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
- 팬데믹 때는 정부가 의무화 착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은 광범위하게 퍼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것.
- 이유는, 다른 사람이 착용할 경우 같이 하는 경향이 일본인의 경우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일본인의 의사 소통 문화에서 입보다는 눈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누군가 말을 할 때 입보다는 눈을 보는 경우가 많고 서구인들은 정반대이다.
- 특히 젊은 일본인의 경우 피부가 나쁘거나 치아가 고르지 않을 경우 이를 마스크로 커버하는 경향이 많고, 남자들이 면도를 하지 않았거나 여성들이

메이크업 하지 않을 경우에 마스크를 쓴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마스크를 쓰면 자신들의 눈이 더 크고, 예쁘게 보인다고 믿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업계동향]

WSJ: Retailers, Brands and Tech Platforms Bet Big on Live-Streamed Shopping in the U.S.

미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소매업체와 각종 브랜드에 돌파구가 될까?

- TV 홈쇼핑의 모델을 디지털 쇼핑에 적용시키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끌다가 팬데믹 기간동안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상황이다.
- 하지만 미국의 마케터들은 라이브 쇼핑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쌓고, 고객을 끌어들이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월마트, 아마존, 트위치와 같은 미국의 기업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한 마케팅에 투자하며 범위를 늘려가고자 했으나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메시지 앱부터 스트리밍 플랫폼, 쇼핑 사이트까지 소비자를 독점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과 달리 미국은 엄격한 독점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해 타사 업체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또 소비자들이 중국만큼 라이브 쇼핑에 익숙하지 않아 라이브 쇼핑을 크게 홍보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작 예산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거두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 하지만 최근 Old Navy 라이브 스트림에 3백만 건 이상의 재생 수를 기록하는 등 라이브 쇼핑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어 많은 브랜드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Walmart Enlists Social-Media Influencers to Help Sell Everything From Food to Clothes

월마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판매 협업 플랫폼 오픈

- 이번주 화요일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회사 제품을 더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했다.
-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 Walmart Creator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수만 개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고, 관심 상품을 추천받거나 제품 링크를 공유하고, 자신이 홍보한 물건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벌 수 있다.
- 월마트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내년에 더 광범위한 출시가 계획되어 있다.

Bloomberg 기사

WSJ: E-Commerce Warehouses, Commercial Property Hot Spots, Start to Cool**식어가는 E-Commerce 창고 시장,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직면**

-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센터와 창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소매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적인 양의 창고가 새로 지어지면서 창고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로 창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상업용 부동산 기업 Cushman & Wakefield에 따르면 3분기 새로 완성된 창고 공간은 1억 4천 8백 20만 평방피트로 지난 5년간 분기 평균보다 약 72% 더 많은 수치이다. 올 봄 아마존은 상업용 부동산이 공급 과잉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미국 내 약 80개 건물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 하지만 내년에도 경제 불황이 있더라도 신규 창고와 임대료가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규 공급망 개발과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을 위해 물류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Microsoft Lays Off Employees After Slowdown in Earnings Growth
마이크로소프트, 성장 둔화로 인력 감축

-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7월 1% 미만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다른 주요 IT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주 정리해고가 시작되면서 향후 비즈니스 수요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해고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 최근 트위터, 넷플릭스 및 우버를 포함한 여러 테크 회사들이 성장 둔화와 불안정한 경제 요인에 대한 대처로 팀의 규모를 줄이고 채용을 동결하는 등 고용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 급락, 비디오 게임 매출 감소,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2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30% 가량의 주가가 떨어졌다.

WSJ 기사

CNBC: IKEA teams with self-driving truck startup Kodiak Robotics to test deliveries in Texas**이케아,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과 손잡고 텍사스에서 시범 배송**

-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Kodiak Robotics는 이케아와 함께 텍사스에서 시범 배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odiak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세미트럭이 휴스턴 근처의 이케아 창고에서 약 3백 마일 떨어진 댈러스 근처의 가게까지 매일 배달을 하게 된 것이다.

- Kodiak 의 CEO Don Burnette 는 “이케아와 함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트럭 운전사들을 해고할 생각은 없고 운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Kodiak의 트럭에는 인간 운전자가 타고 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운전되고 있다.
- 한편 텍사스는 자율주행 트럭 시험의 온상이 되었다. 비교적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텍사스의 도시들 사이로 길게 뻗은 고속도로가 자율주행 적용에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주택시장지수, 반년 만에 반토막...10년 만에 최저치

미국의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는 10월 주택시장지수(HMI)가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지수는 10개월 연속 떨어져 지난 1985년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이어갔다.

10월 HM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